

2026년 05월 15일 |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투자전략팀 | 자산배분

월간 자산배분 : 실적 모멘텀에 기반한 주식 선호 유지

퀀트/자산배분 Analyst 최재원 c.jw5056@kiwoom.com
RA 이현수 hslee@kiwoo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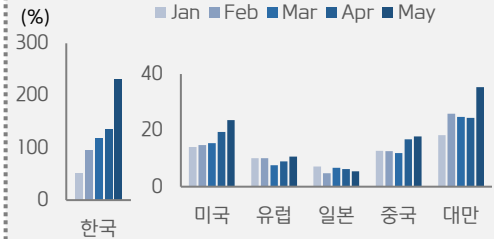
(요약) 5월 자산배분 Key Charts

5월 자산배분 전망

		SAA	TAA	자산별 최근 수익률		
				5월	1M	3M
		(%)	(%)	(%)	(%)	(%)
주식	국내	7.5	9.5	38.6	53.4	122.3
	미국	28.5	30.5	6.9	9.2	11.2
	선진(미국 제외)	12.0	13.0	0.1	0.1	11.0
	신흥	7.0	7.0	9.1	10.2	24.1
	종합	55	60.0			
채권	국내종합	22.0	19.0	- 1.9	- 1.7	- 2.3
	미국국채	10.0	10.0	- 0.9	- 1.5	0.1
	미국HY	3.0	2.0	- 0.1	0.4	2.6
	종합	35	31.0			
대체	금	5.5	4.5	- 3.5	- 7.3	13.7
	글로벌 REITs	4.5	4.5	1.7	1.8	10.5
	현금	0.0	0.0			
	종합	10	9.0			
	원/달러			1.4	3.4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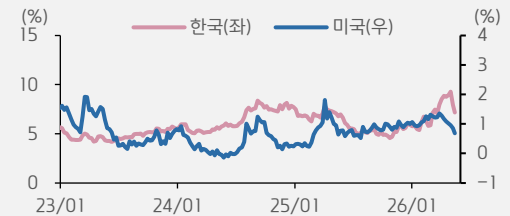
- * 1분기 어닝시즌이 진행되는 가운데, AI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에 힘입어 증시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개선 중
- *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채권 자산에 비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는 점을 감안 채권 대비 주식 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 유지
- * 한편, 최근 국내 증시의 탄력적인 상승으로 자산배분 측면에서 허용 범위의 상단을 단기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다만, 산업 구조 재편이 지속 및 AI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유동적인 리밸런싱 시점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포인트 1. 증시 실적 모멘텀 유효



- * 1분기 어닝시즌이 진행되는 가운데, 글로벌 증시는 대체로 실적 전망이 상향되는 모습
- * 특히 AI 밸류체인이 수혜가 있는 미국을 비롯해 한국, 대만, 중국 등의 실적 모멘텀 유효

포인트 2.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우위



- *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금리 상승세가 연 출되고 있지만, 여전히 채권 대비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존재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각 자산별 BM 지수: 국내주식(KOSPI 200), 미국주식(S&P 500), 선진(미국 제외)(MSCI World Ex US), 신흥주식(MSCI Emerging), 국내채권(KIS 종합채권), 미국국채(Bloomberg 미국 채권 종합), 미국HY(Bloomberg 미국 회사채 HY), 글로벌 REITs(S&P Global REIT)

Contents

Part 1. 월간 이슈: 실적 모멘텀에 기반한 주식 선호 유지 p. 04

Part 2. 5월 자산배분 전략 및 동향 p. 14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 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Part 1.

월간 이슈: 실적 모멘텀에 기반한 주식 선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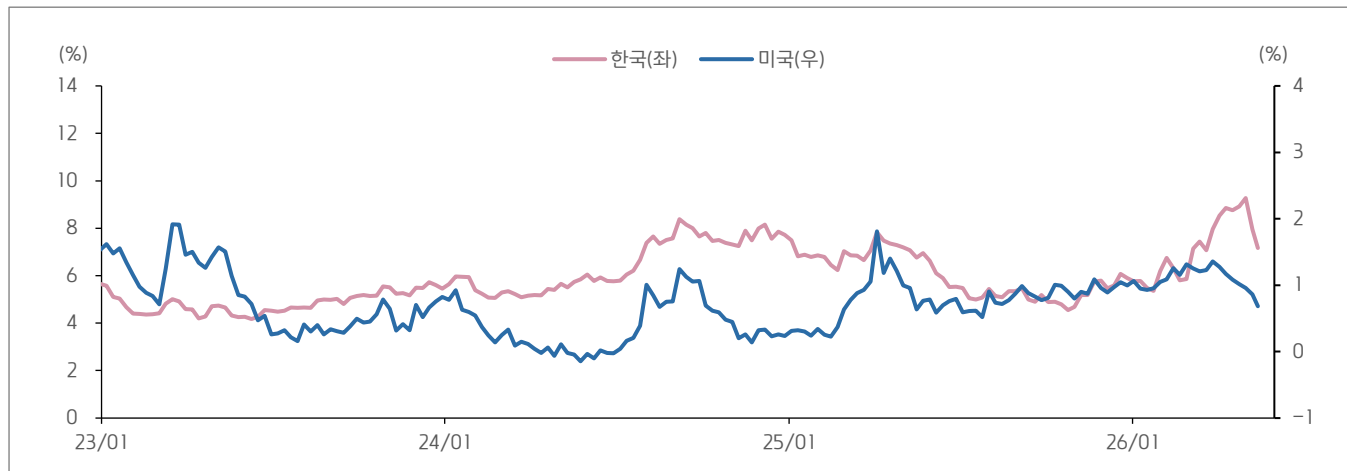


01.

증시 신고가에도 유지되는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 ▶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내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1분기 어닝시즌을 맞아 국내외 증시는 AI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성장에 집중하며 연일 신고가를 경시하고 있음
- ▶ 주식의 기대수익률과 채권 수익률 간의 차이를 통해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을 살펴보면, 2분기에 들어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로 인한 채권 수익률 상승에도 한국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높게 유지되는 모습
 - 상반기까지도 국내 IT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는 점이 그 배경

한국과 미국 증시의 어닝스 일드 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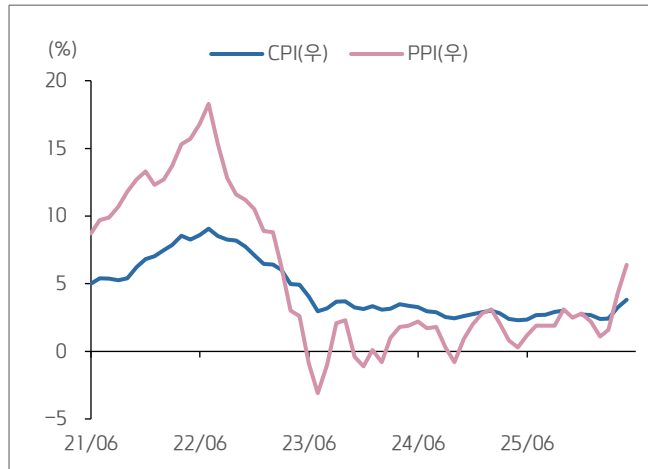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2.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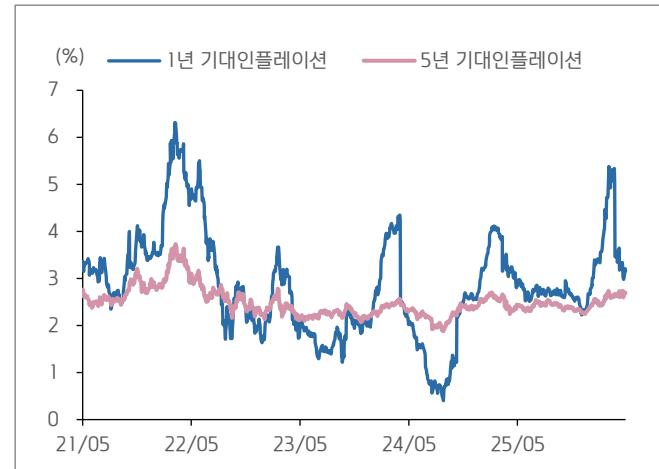
- ▶ 미-이란 간의 완전한 협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국제유가는 100 달러 내외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지속되며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자극
 - 미국의 3월 헤드라인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하며 에너지 쇼크가 본격화되는 모습
- ▶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었던 1분기 기간의 5% 수준보다는 낮아졌지만, 국제유가 충격에 기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상존하며 1년, 5년 기대인플레이션은 각각 3.2%, 2.7% 수준

미국 물가지표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단기/장기 기대인플레이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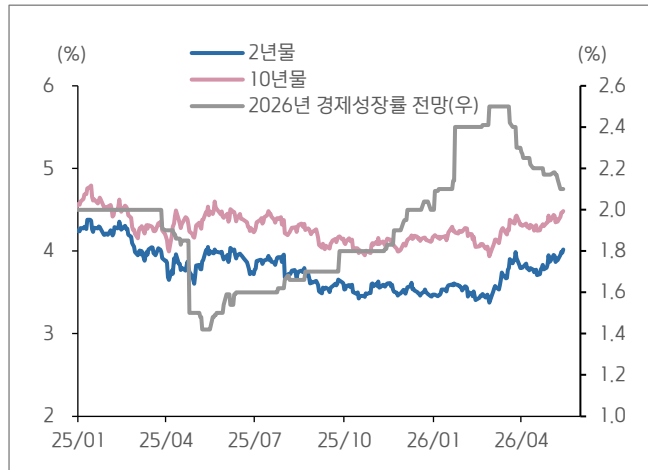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3.

낮아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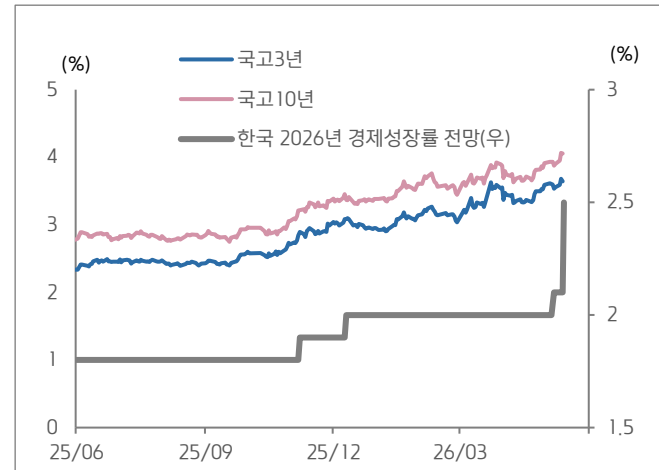
- ▶ 미국은 관세 및 전쟁 충격으로 인한 민간 소비 둔화 가능성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2분기에 들어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음. 그러나 에너지 충격이 본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자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위축 - 5월 중순 기준, CME FedWatch 상 연내 금리 동결, 내년 2분기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
- ▶ 한국의 경우, 반도체 및 AI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수출 확대 흐름이 예상됨에 따라 경제 성장률 전망은 최근 2% 중후반까지도 거론 - 경제 체력 개선을 바탕으로 최근의 물가 및 환율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 가능성 대두
- ▶ 최근의 매크로 환경은 국내외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위축되고, 에너지 가격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을 확인하는 과정임을 감안 채권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낮아지는 구간으로 판단

미국 국채금리와 '26년 성장률 전망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국고금리와 '26년 경제성장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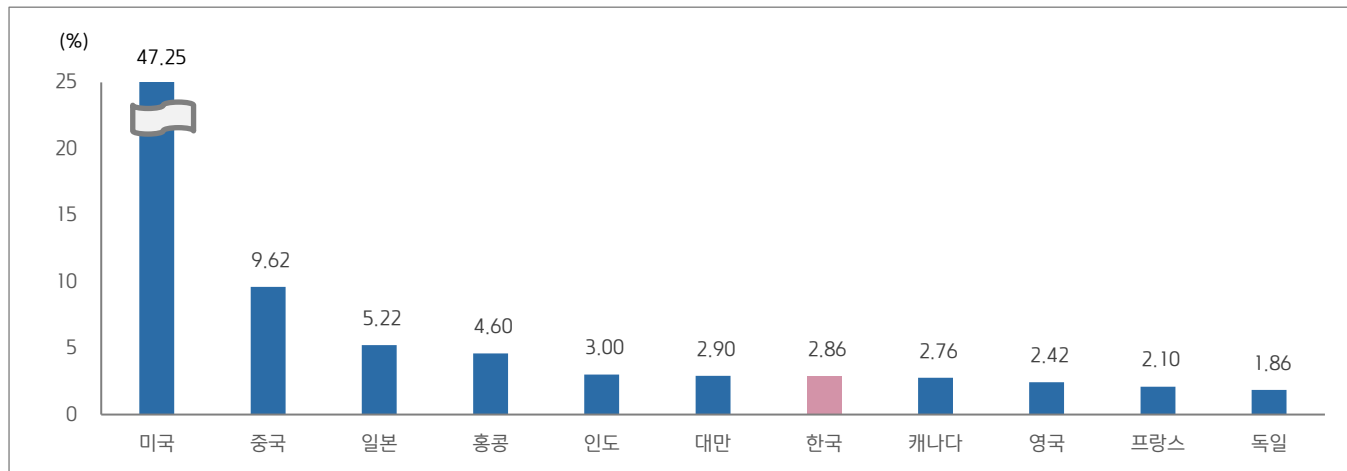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4.

국내 증시 시가총액 규모는 글로벌 상위 7번째

- ▶ 2025년 연말 기준,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비중은 유럽의 상위 3개국인 영국(2.6%), 프랑스(2.4%), 독일(2.1%)보다 낮은 1.8% 수준
- ▶ 연초 이후 급격한 주가 상승세에 힘입어 국내 증시 시가총액 규모는 글로벌 증시는 7번째에 위치하며, 글로벌 증시 중, 약 2.86%를 차지. 이는 캐나다(2.76%), 영국(2.4%), 프랑스(2.1%), 독일(1.86%)을 앞서는 수치

주요국 증시, 시가총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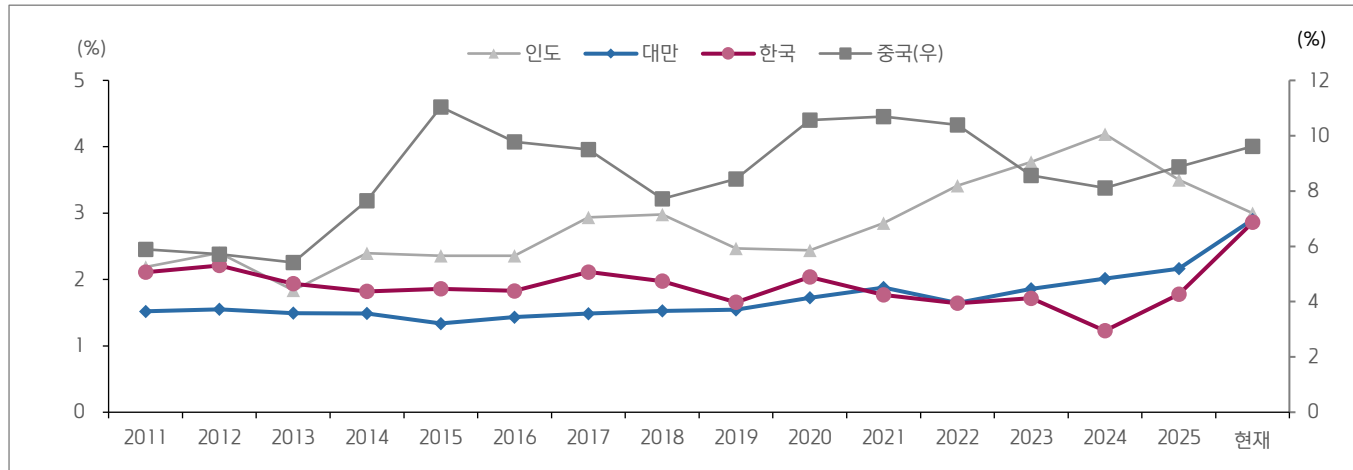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5.

EM 내, 3위 비중 탈환 임박

- ▶ 한국 증시는 2010년대 후반까지 신흥 권역 국가들 중,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왔음
- ▶ 하지만, 2020년 이후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대만 증시의 성장 그리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격차 등으로 인해 2024년 연말 기준 한국과 대만의 증시 규모의 역전이 두드러졌음
- ▶ 하지만,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력 회복과 함께 메모리 가격 상승 흐름이 중첩되며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뒷받침 되고 있음. 그 결과 양국 간의 시가총액 규모 간극은 재차 축소
 - 공급 부족 장기화 및 하이퍼스케일러들의 HBM 물량 선계약 등으로 인해 과거 대비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최근의 반도체 업종 강세를 뒷받침하는 배경

주요 신흥국 증시, 글로벌 증시 내 시가총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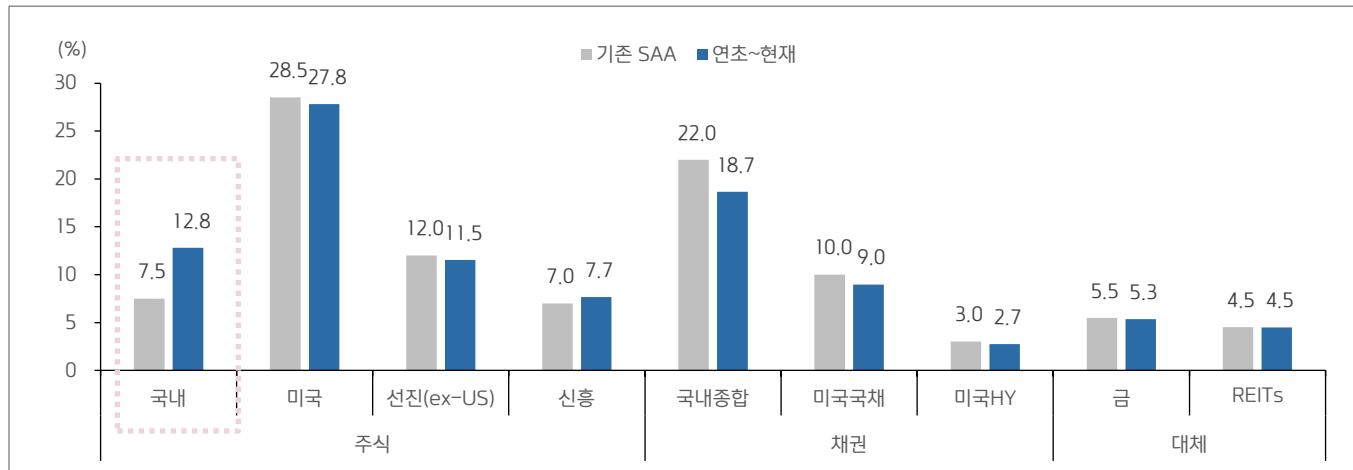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6.

급등 흐름은 배분 전략에 대한 고민으로 ...

- ▶ 국내 증시의 폭발적인 상승 흐름은 수익률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거나, 자산배분 전략 측면에서는 고민할 지점을 만들어 내고 있음
- ▶ 2025년말 글로벌 증시 내에서의 비중이 1.8% 였던 한국 증시는 2026년 현재 2.86%까지 상승. 글로벌 증시 규모 기준으로도 1%p 증가. 더 나아가 자국 편향이 있는 국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경우,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 범위를 큰 폭으로 상회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 ▶ 당사의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중장기적인 자산배분 비중을 기준으로 연초 이후 리밸런싱을 하지 않은 경우, 국내 주식 비중은 SAA 목표치를 약 5.3%p 초과
- ▶ 다만, 산업 구조 재편 및 국내 증시 리레이팅 흐름이 여전히 진행중인 점을 감안 단기적인 레인지 이탈을 유보하며 리밸런싱 시점을 유동적으로 관리할 시점으로 판단

키움 글로벌 SAA 포트폴리오 기준, 연초 이후 비중 변화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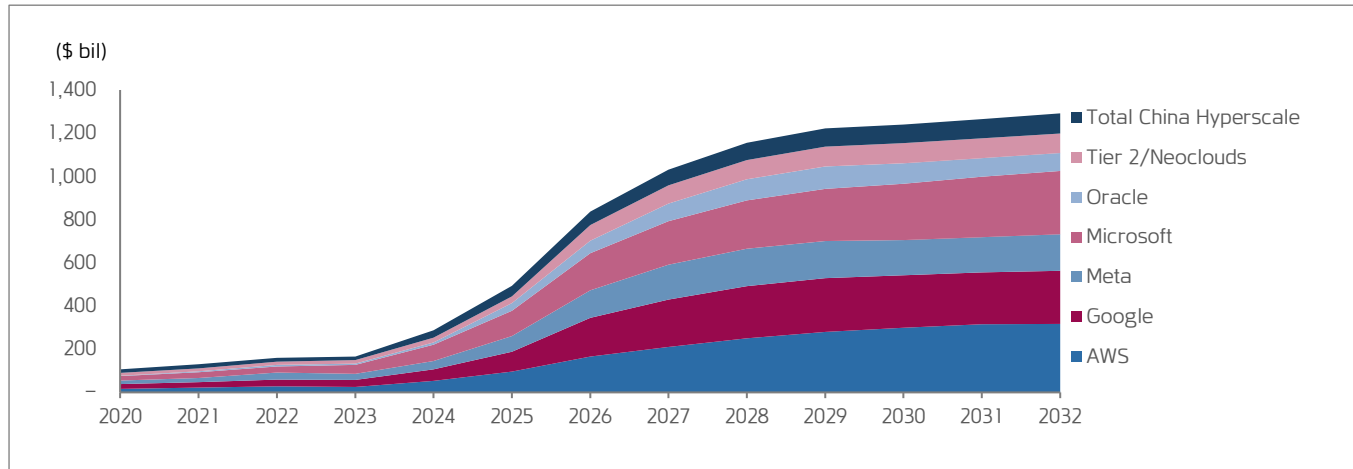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7.

하이퍼스케일러들의 CAPEX 투자 확대 중

- ▶ 2026년 기준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을 CAPEX 투자에 투입하는 모습. 소수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구축되고 있음
- ▶ 이번 투자 사이클은 구조적 변화의 양상을 보이며 장기 투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가운데, 특히 2025년 CAPEX 증가율은 72%, 2026년은 70% 수준이 예상되며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간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CAPEX 규모 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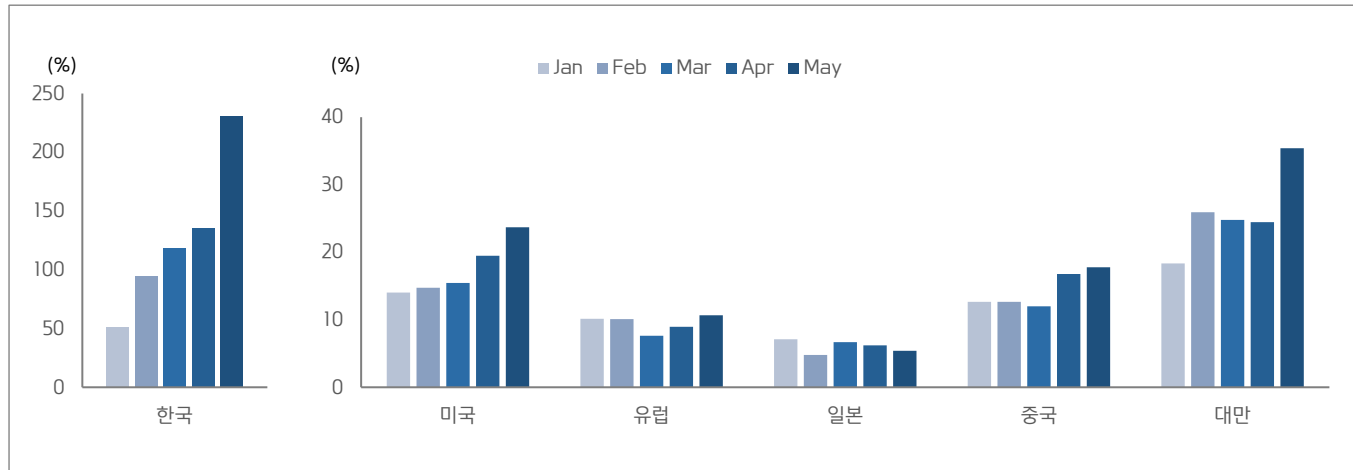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8.

1Q 어닝시즌과 함께 개선되는 글로벌 실적 전망

- ▶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막대한 CAPEX 투자는 관련 인프라 공급망 수혜 지속
- ▶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 설비, 냉각 시스템 등 AI 인프라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수요 가시성이 확보
- ▶ 그 결과 AI 관련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을 비롯해 EM 권역 내의 아시아 국가(한국, 대만, 중국) 등의 2026년 실적 성장률 전망은 상향되며 실적 모멘텀을 강화 시키는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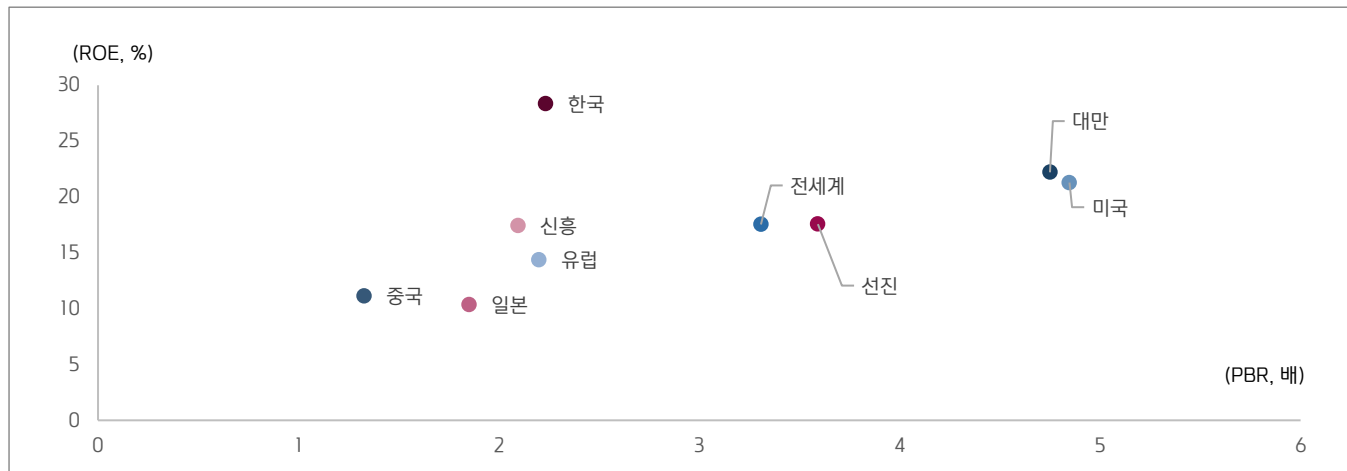
주요국 증시, 2026년 EPS 성장률 전망 추이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 ROE - PBR 기준, 한국 증시의 수익성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 최근의 상승으로 PBR은 신흥국을 소폭 상회한 2.23배까지 높아졌음
- ▶ 단기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이 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AI 밸류체인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대만 등의 멀티플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개선 기대 유효

주요국 PBR과 ROE (Fwd. 1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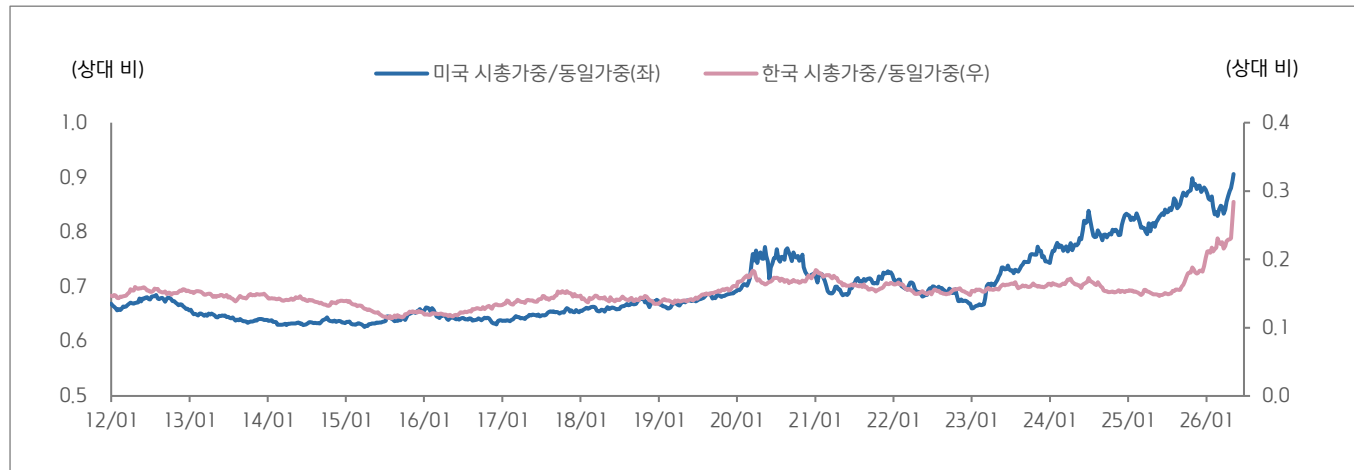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0.

대형주 중심의 쏠림 심화는 증시 변동성 측면에서 부담

- ▶ AI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한 국내 및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음
- ▶ 산업 구조 변화를 바탕으로 한 흐름은 AI 테마 강세가 상당 기간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에 무게를 싣고 있음
- ▶ 다만,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역시도 완화되었던 대형주 중심의 쏠림 장세가 다시금 연출되는 모습
- 신고가 경신에도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상황
- ▶ 현재의 추세를 지탱하는 AI 성장 기대감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리스크 상존

한/미 증시, 시총 가중 지수와 동일 가중 지수의 상대비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Part 2.

5월 자산배분 전략 및 펀더멘털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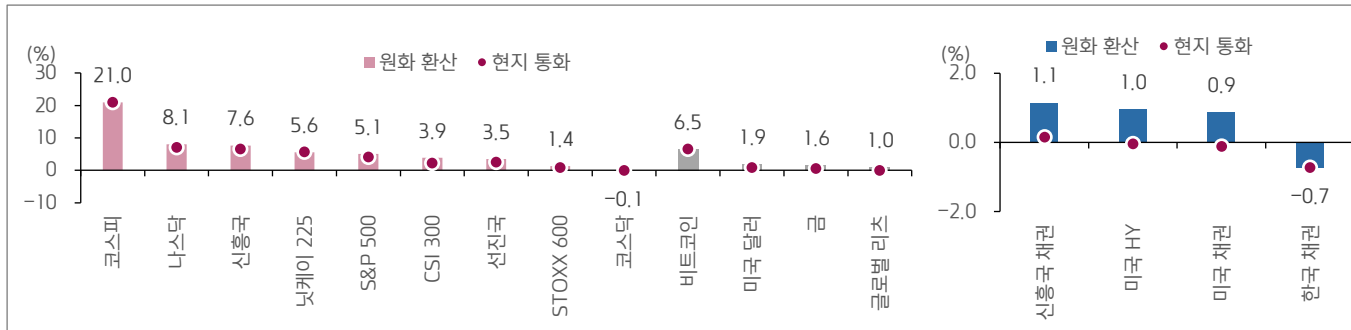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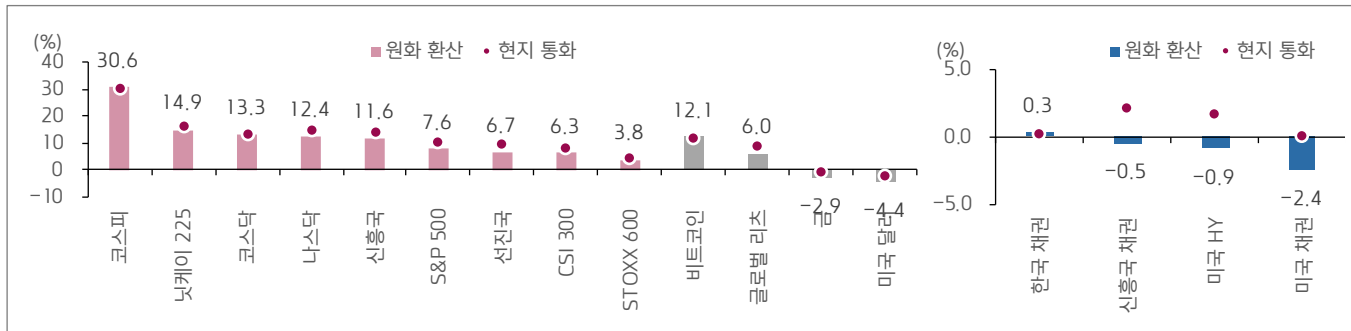
월간 자산군 성과 리뷰

- ▶ 5월 코스피(+21%)는 반도체 수출 급증(5월 1~10일 YoY +149.8%)에 힘입어 KOSPI는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신고가 경신을 이어가는 모습
- ▶ 비트코인(+6.5%)은 5월 초 테크 섹터와 동조화된 위험자산 성격 강화되며 안도 랠리 연출, 8만1000달러 상회, 금(+1.6%)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상존에도 달러 강세가 동반되며 상승폭은 제한

주요 자산군 월간 성과 (5월 MTD)



주요 자산군 월간 성과 (4월)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 원형 표시는 환 효과 고려되지 않은 경우 수익률

- ▶ 1분기 어닝시즌이 진행되는 가운데, AI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에 힘입어 증시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 개선 중
- ▶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채권 자산에 비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는 점을 감안 채권 대비 주식 자산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 유지
- ▶ 한편, 최근 국내 증시의 탄력적인 상승으로 자산 배분 측면에서 허용 범위의 상단을 단기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다만, 산업 구조 재편이 지속 및 AI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유동적인 리밸런싱 시점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5월 자산배분 비중 및 최근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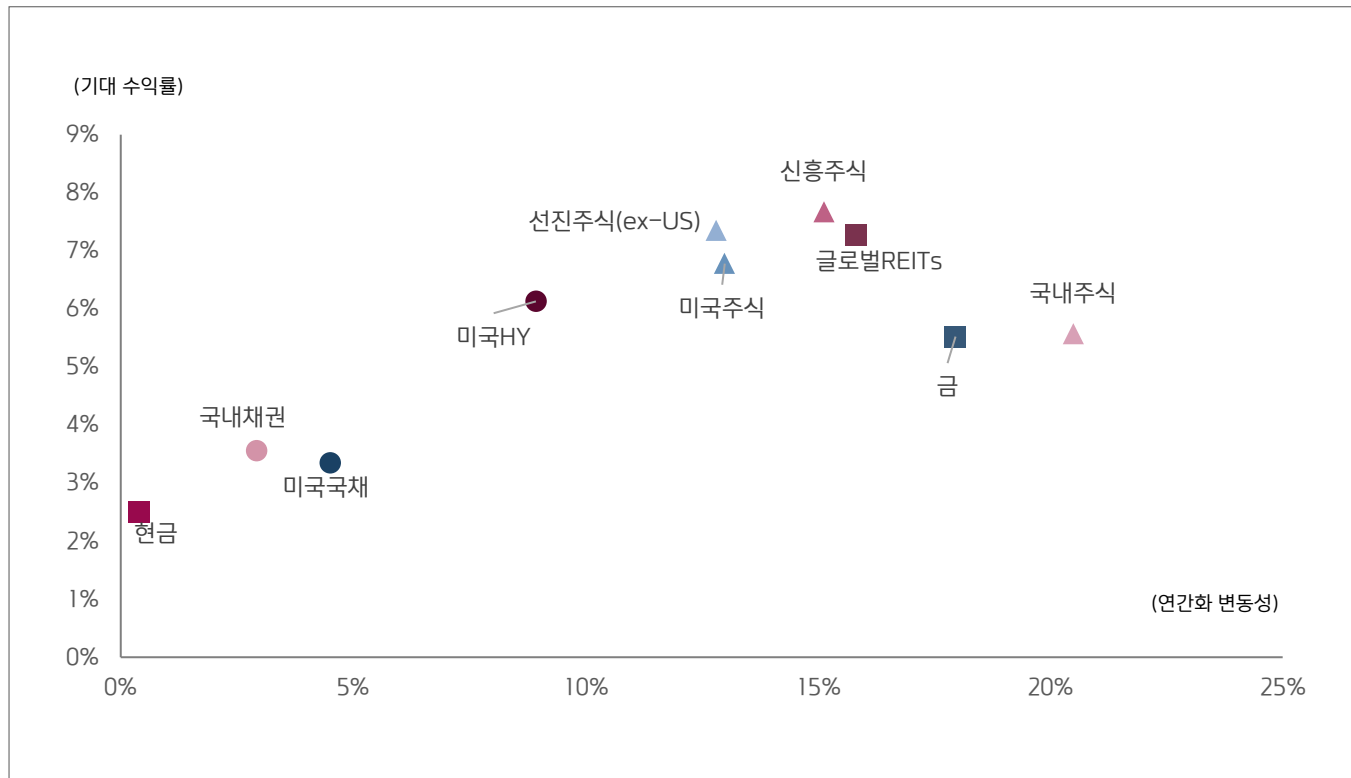
	SAA	TAA	자산별 최근 수익률						
			5월	1M	3M	6M			
	(%)	(%)	(%)	(%)	(%)	(%)			
주식	국내	7.5	9.5	38.6	53.4	122.3			
	미국	28.5	30.5	6.9	9.2	11.2			
	선진(미국 제외)	12.0	13.0	0.1	0.1	11.0			
	신흥	7.0	7.0	9.1	10.2	24.1			
	종합	55	60.0						
채권	국내종합	22.0	19.0	-	1.9	-	1.7	-	2.3
	미국국채	10.0	10.0	-	0.9	-	1.5		0.1
	미국HY	3.0	2.0	-	0.1		0.4		2.6
	종합	35	31.0						
대체	금	5.5	4.5	-	3.5	-	7.3		13.7
	글로벌 REITs	4.5	4.5		1.7		1.8		10.5
	현금	0.0	0.0						
	종합	10	9.0						
원/달러				1.4		3.4			2.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1) 각 자산별 BM 지수: 국내주식(KOSPI 200), 미국주식(S&P 500), 선진(미국 제외)(MSCI World Ex US), 신흥주식(MSCI Emerging), 국내채권(KIS 종합채권), 미국국채(Bloomberg 미국 채권 종합), 미국HY(Bloomberg 미국 회사채 HY), 글로벌 REITs(S&P Global REIT)

03. (참고) 자산별 수익률 및 변동성 가정

유니버스 해당 자산들의 기대수익률 및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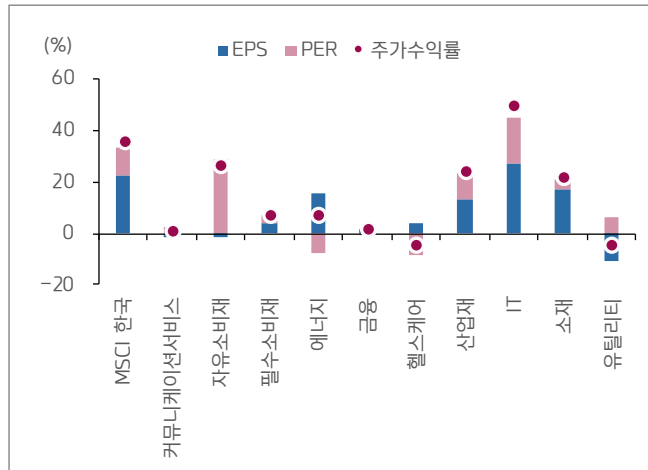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4. 한/미 업종별 주가 수익률(1M) 동인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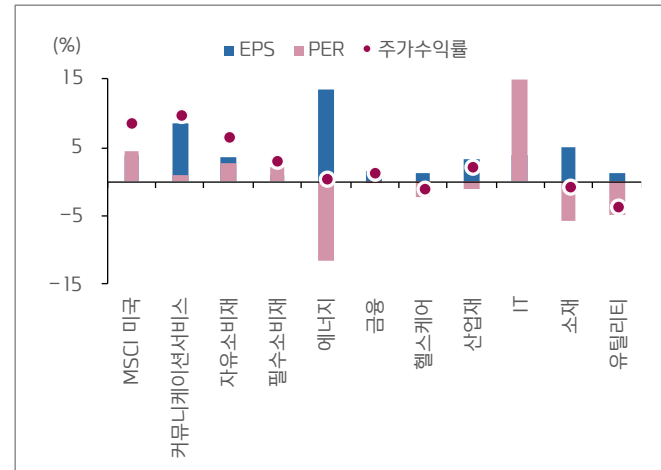
- ▶ 한국은 선행 12개월 EPS(+22.7%)는 개선되며,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EPS 개선 탄력을 기록. 정부의 상법 개정 추진과 4월 WGBI(세계정부채권지수) 편입 등이 PER(+10.8%) 또한 끌어올림
- ▶ 국내 업종 중에선 IT 업종(+27.3%), 소재(+16.9%), 에너지(+15.1%), 산업재(+13.1%) 등이 EPS 개선 흐름
- ▶ 미국 증시 또한 미-이란 종전 기대감과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실적으로 확인되며 투자심리가 개선, 양호한 수익률(+8.5%) 기록. 선행 12개월 EPS(+3.9%) 증가 및 PER(+4.4%) 상승
- ▶ 업종 중에선 고유가 흐름 유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에너지(+13.6%) 업종의 EPS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진 가운데, 그 외에도 커뮤니케이션(+8.5%), 소재(+5.0%) 등이 실적 개선 흐름

한국, 업종별 최근 주가 수익률(1M) 동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업종별 최근 주가 수익률(1M) 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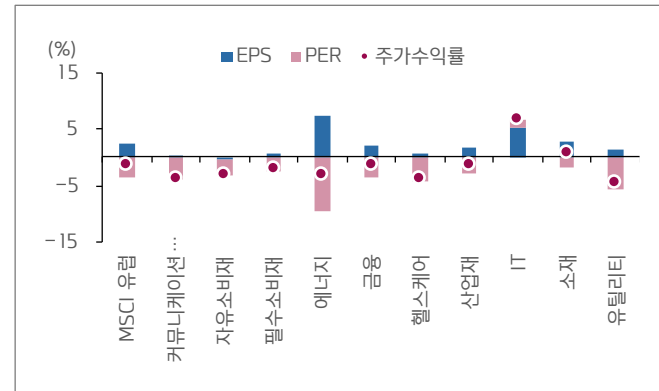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5.

유럽, 일본, 중국 업종별 주가 수익률(1M) 동인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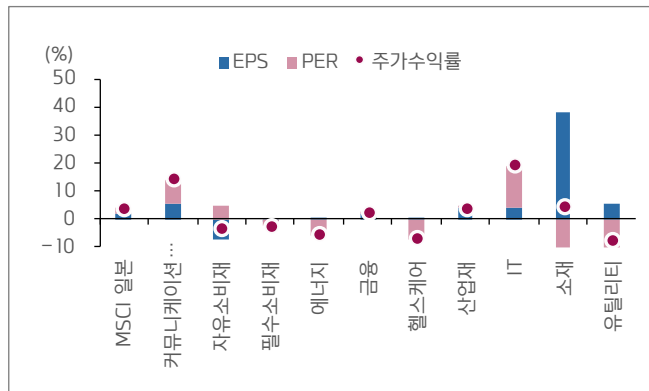
- ▶ 유럽은 IT(+6.8%)와 소재(+0.7%)만이 양의 수익률을 기록. 나머지는 에너지 수입 비용 상승 등에 음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유틸리티(-4.4%)가 가장 부진
- ▶ 일본은 IT(+19.3%)가 강세. AI 인프라 모멘텀이 추가된 커뮤니케이션서비스(+14.5%) 또한 좋은 주가 흐름을 기록. 유틸리티(-7.5%)와 헬스케어(-6.9%)는 부진
- ▶ 중국 역시 IT(+15.4%) 업종이 가장 높은 수익률 기록하였으며 유틸리티(+4.2%)와 금융(+3.4%)가 양호한 흐름. 커뮤니케이션(-4.9%)와 필수소비재(-3.2%)는 부진한 모습

유럽, 업종별 최근 주가 수익률(1M) 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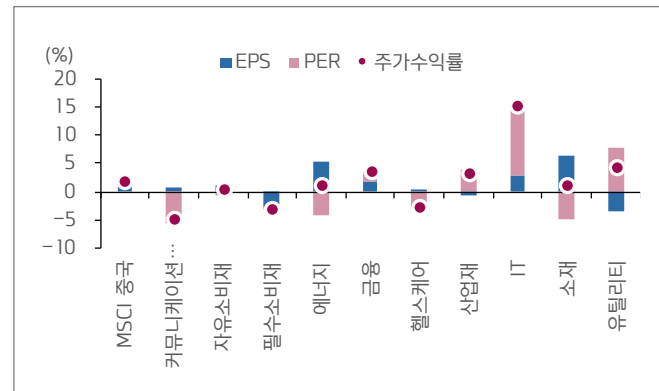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일본, 업종별 최근 주가 수익률(1M) 동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중국, 업종별 최근 주가 수익률(1M) 동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6.

(참고) 주요국 업종별 주가 수익률(3M) 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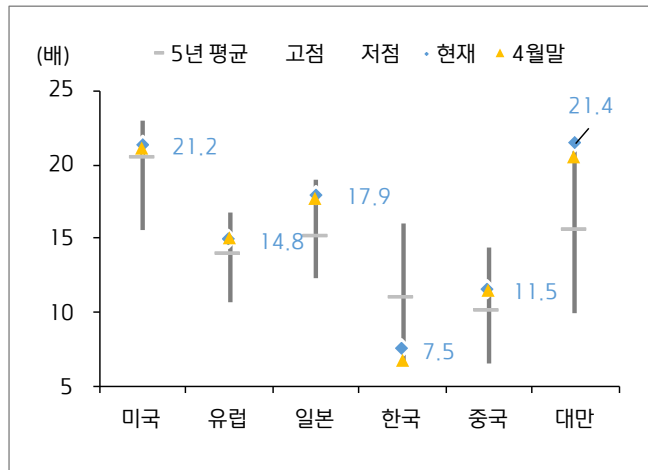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7.

주요국 증시, 밸류에이션 현황

- ▶ 미국은 선행 12개월 PER은 현재 21.2배 수준으로 5년 평균(20.3배)를 상회하며 다소 고평가 된 영역에 위치. 빅테크 실적 호조가 주가를 견인 중이나, 4월 CPI(YoY 3.8%) 반등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멀티플 확장을 억제하는 상단 저항선으로 작용 중
 - ▶ 한국의 선행 12개월 PER은 7.5배 수준에 위치. 5년 평균(11.0배) 대비 약 32% 할인된 상태로, 글로벌 주요국 중 가장 저평가 구간에 위치. 5월 초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며 EPS는 폭발적으로 상향되었으며, 최근 한 달간 PER(+10.8%)도 상승하며 멀티플 리레이팅이 가파르게 진행 중
 - ▶ 유럽 증시의 선행 12개월 PER은 14.8배로 5년 평균(13.9배)를 소폭 상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비용 압박이 내수 섹터의 멀티플을 누르고 있으나, ASML 등 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밸류에이션 하단을 지지
 - ▶ 대만은 현재 21.4배로 글로벌 AI 하드웨어 허브로서 위상 강화되며 5년 평균(15.5배)을 38% 가량 상회
- 주요국 최근 5년 P/E(Fwd. 12M) 범위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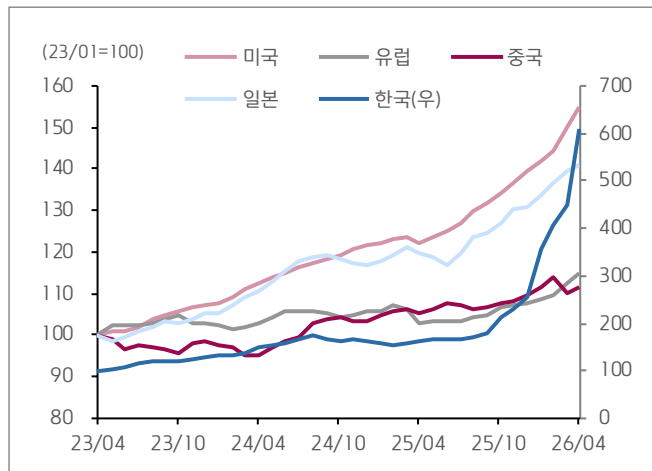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8. (실적) 주요국 증시, 실적 전망 추이 및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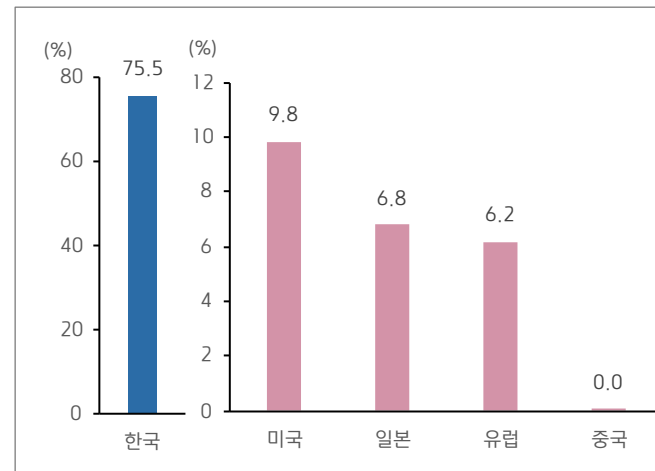
- ▶ 한국 EPS(Fwd. 12M)는 지난 3개월 간 75.5% 상승. 특히 4월 반도체 수출이 YoY로 약 150% 가량 급증하는 등 HBM 및 레거시 DRAM 가격 상승이 실적으로 연결되며 IT섹터 EPS가 100.5% 가량 상승
- ▶ EPS(Fwd. 12M)는 지난 3개월 간 9.8% 상승. 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랠리로 인해 에너지(+52.8%)와 소재(+16.5%) 섹터의 EPS 변화율이 가장 높았음
- ▶ 일본 역시 고유가 및 정부의 에너지 안보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에너지(+47.6%) 업종이 가장 크게 상향
- ▶ 중국은 내수 부진에도 소재(+20.2%), 에너지(+18.5%) 업종의 EPS(Fwd.12M)가 크게 상향 조정. 이는 글로벌 비철금속 가격 상승 및 정부의 희토류 등 통제 강화, 유가 상승에 따른 국영 석유사 등의 마진 확대에 따른 것

MSCI 국가지수별 EPS(Fwd. 12M) 추이 (3년)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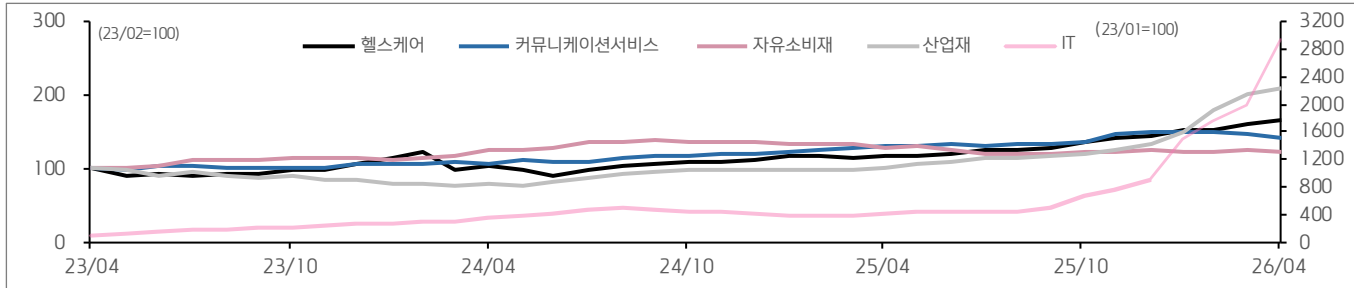
국가별 EPS(Fwd. 12M) 최근 변화율 (3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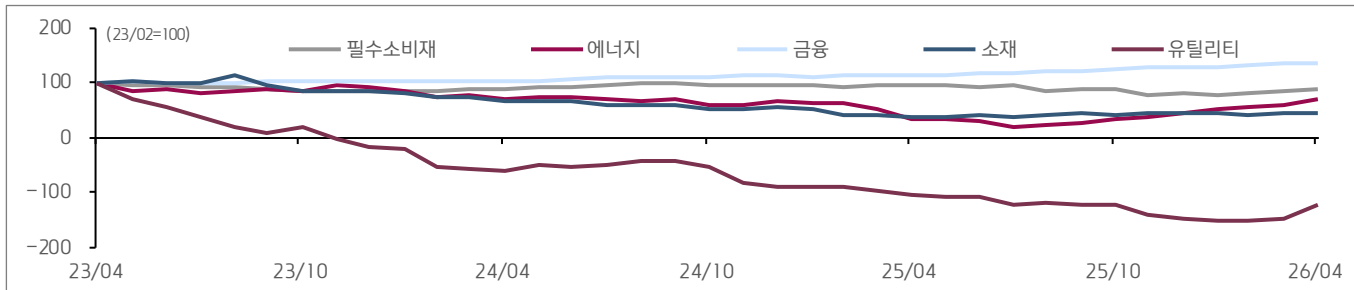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09. (실적) 한국 EPS(Fwd. 12M) 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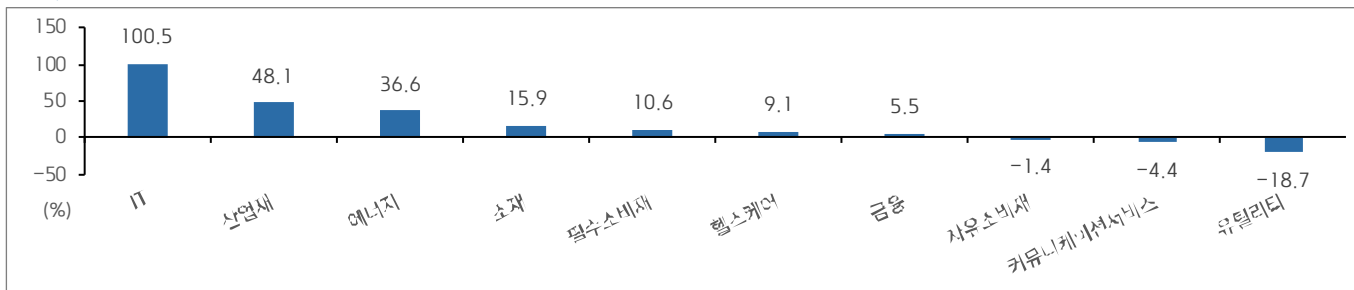
한국, 업종별 최근 3년 EPS(Fwd. 12M) 추이(1)



한국, 업종별 최근 3년 EPS(Fwd. 12M) 추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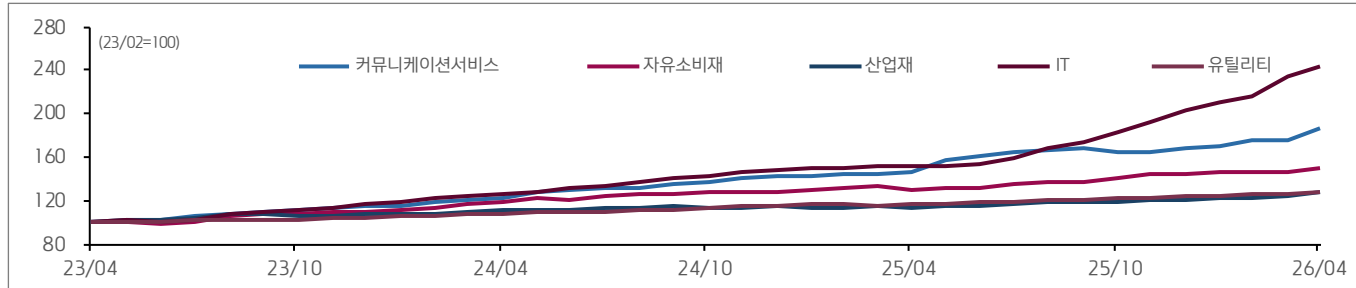
한국, 업종별 최근 3개월 EPS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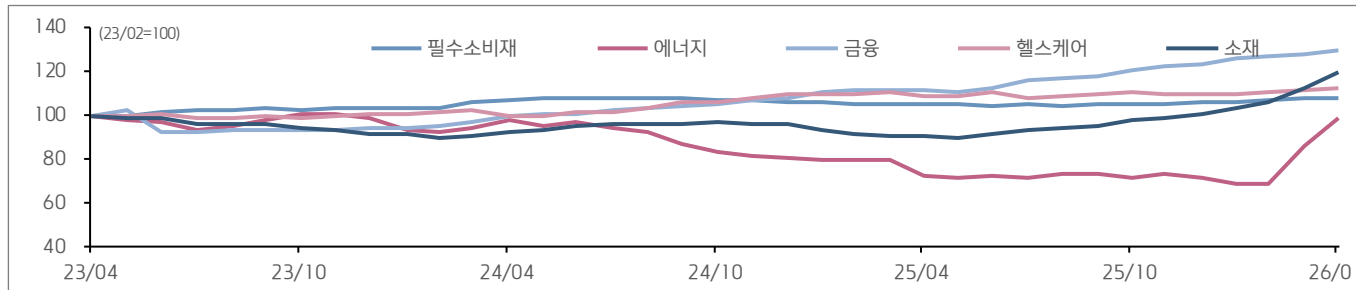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0. (실적) 미국 EPS(Fwd. 12M) 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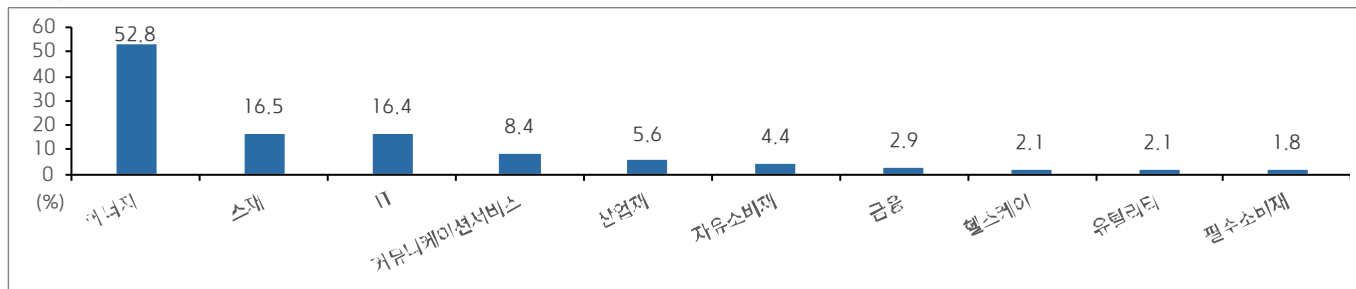
미국, 업종별 최근 3년 EPS(Fwd. 12M) 추이(1)



미국, 업종별 최근 3년 EPS(Fwd. 12M) 추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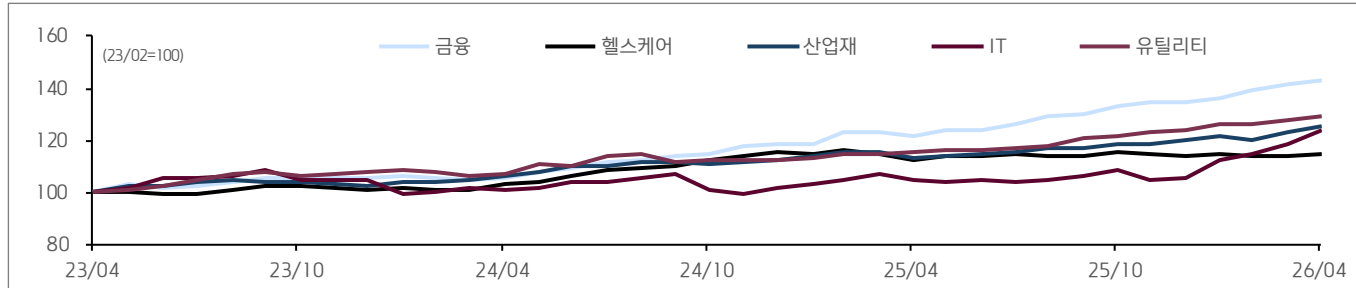
미국, 업종별 최근 3개월 EPS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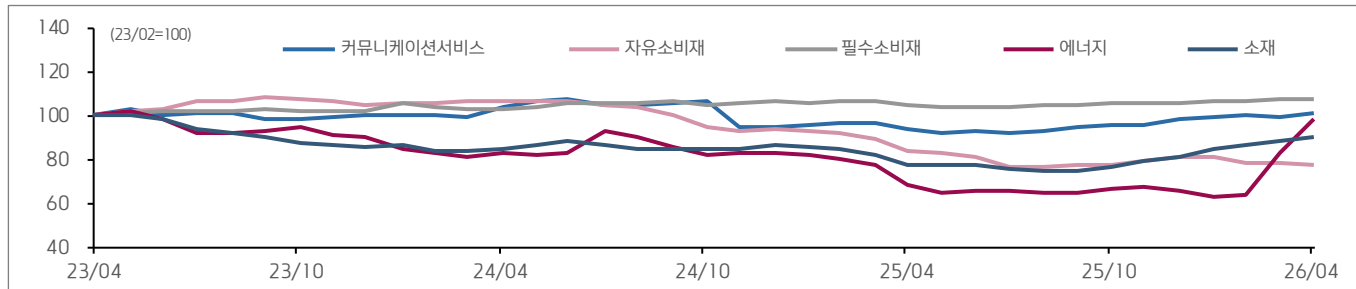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1. (실적) 유럽 EPS(Fwd. 12M) 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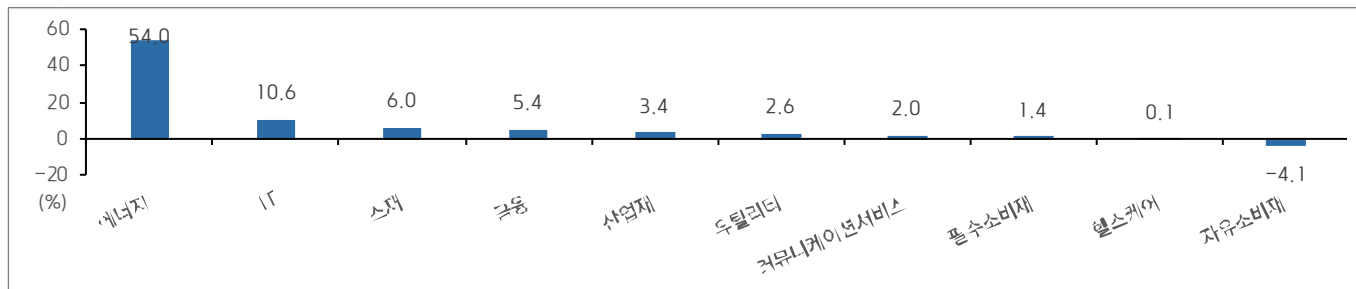
유럽, 업종별 최근 3년 EPS(Fwd. 12M) 추이(1)



유럽, 업종별 최근 3년 EPS(Fwd. 12M) 추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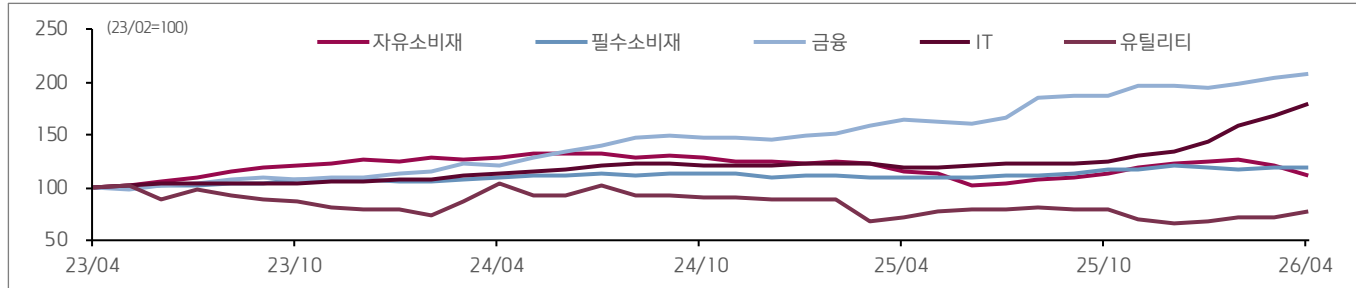
유럽, 업종별 최근 3개월 EPS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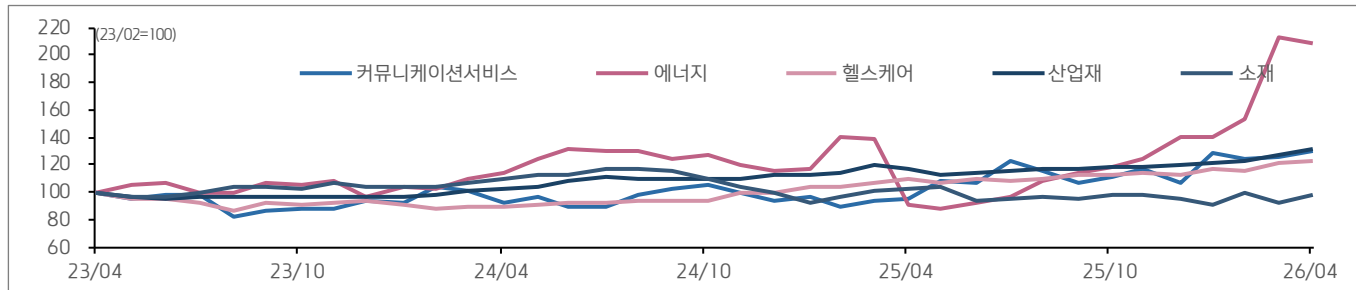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2. (실적) 일본 EPS(Fwd. 12M) 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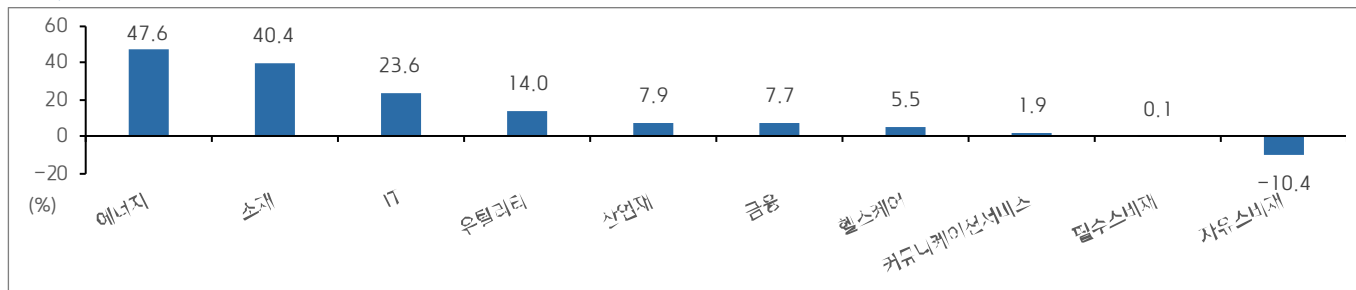
일본, 업종별 최근 3년 EPS(Fwd. 12M) 추이(1)



일본, 업종별 최근 3년 EPS(Fwd. 12M) 추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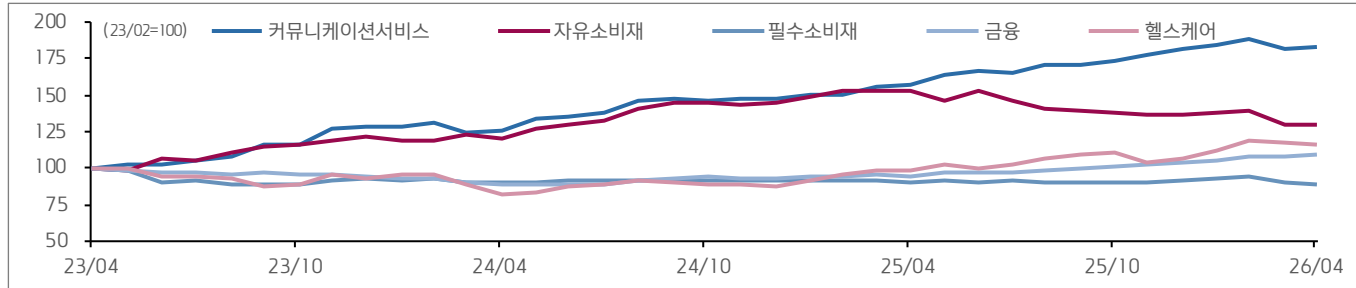
일본, 업종별 최근 3개월 EPS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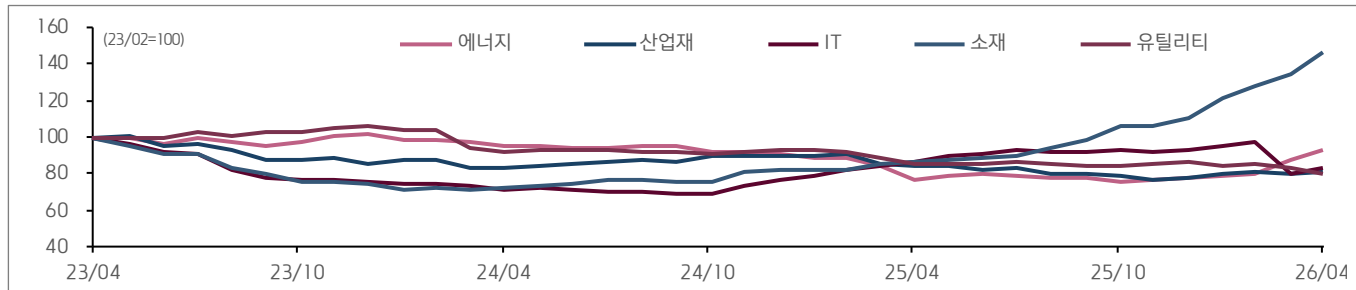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3. (실적) 중국 EPS(Fwd. 12M) 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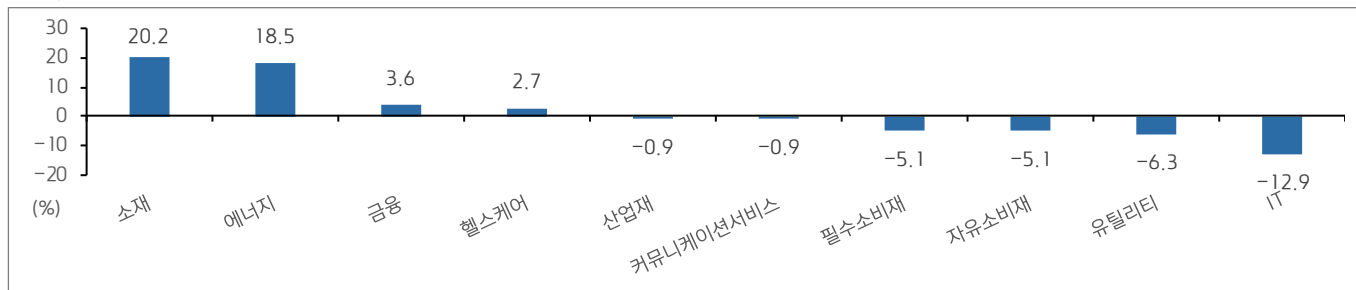
중국, 업종별 최근 3년 EPS(Fwd. 12M) 추이(1)



중국, 업종별 최근 3년 EPS(Fwd. 12M) 추이(2)



중국, 업종별 최근 3개월 EPS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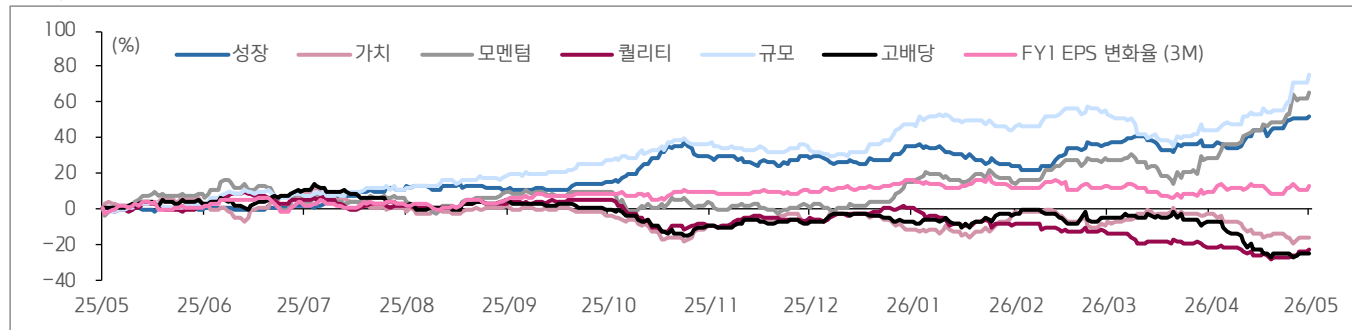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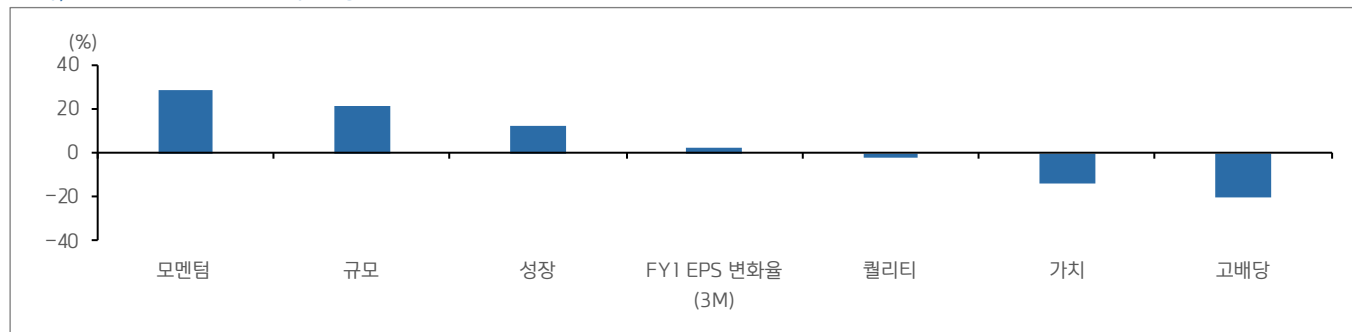
(스타일) 한국 주요 스타일 팩터 동향

- ▶ 최근 1개월 간, 한국은 모멘텀(+28.9%)과 규모(+21.8%) 스타일이 가장 좋은 높은 성과를 기록
- ▶ KOSPI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상승을 지속해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최상위 대형주로의 수급 집중이 극대화 되었기 때문.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면서 확실한 실적을 가진 대형주가 상승 모멘텀을 지속, 중소형주 대비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장세 연출

한국, 최근 1년 스타일 팩터 롱/숏 누적 성과



한국, 최근 1개월 스타일 팩터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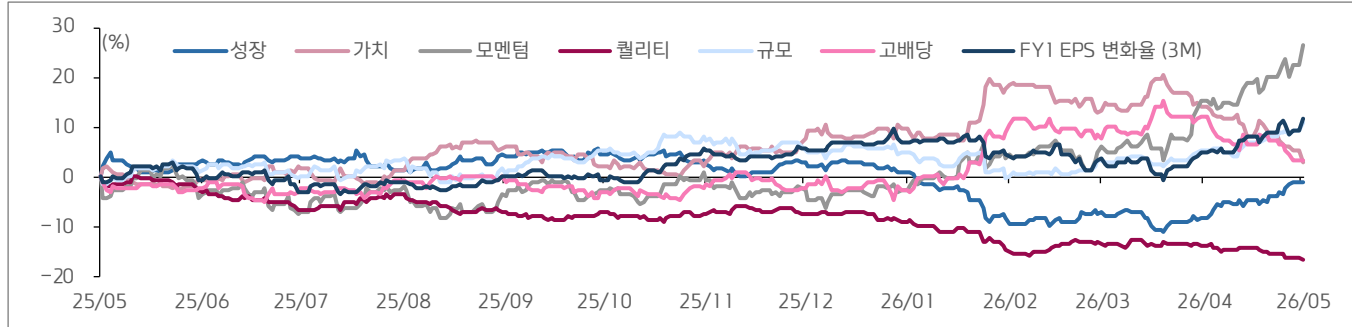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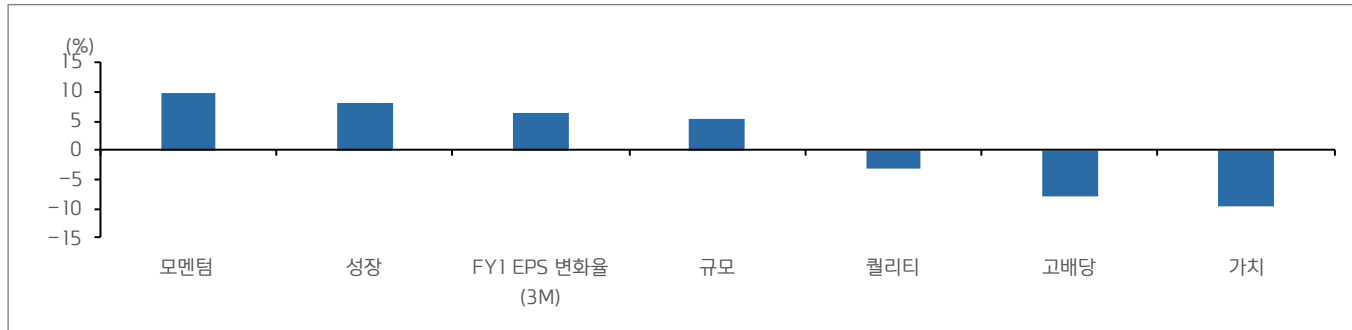
(스타일) 미국 주요 스타일 팩터 동향

- ▶ 최근 1개월, 미국은 모멘텀(+9.7%), 성장(7.9%) 스타일이 강세, 가치(-9.7%) 스타일은 약세
- ▶ 기술주, 특히 반도체 쓸림이 결정적. 4월초까지 부진했던 모멘텀이 급반등한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감 완화에 따른 안도 랠리와 AI/반도체 주도주의 호실적에 기반

미국, 최근 1년 스타일 팩터 롱/숏 누적 성과



미국, 최근 1개월 스타일 팩터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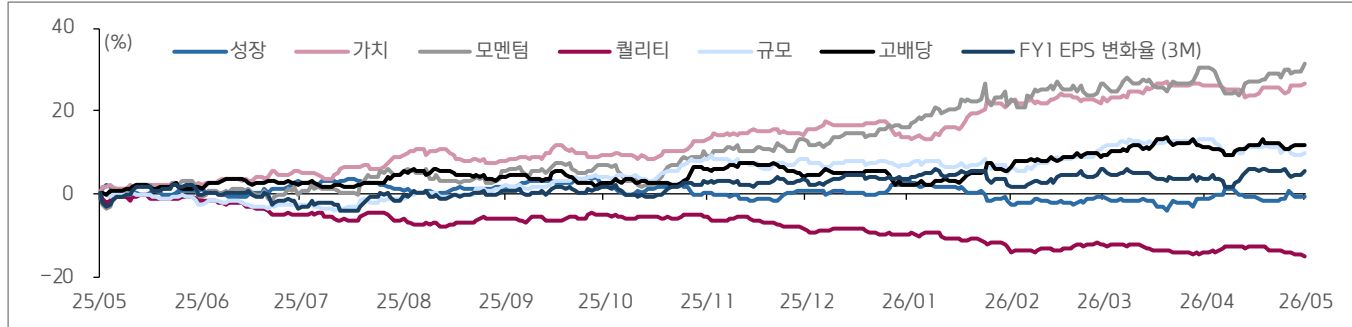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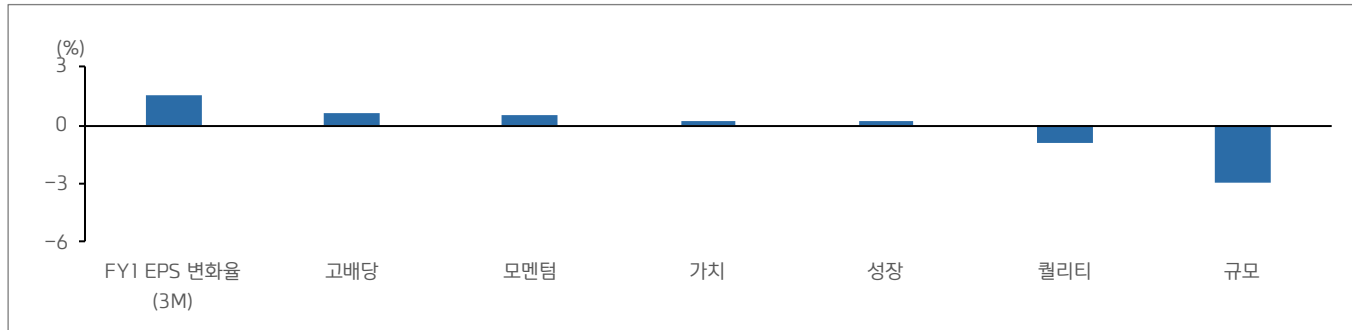
(스타일) 유럽 주요 스타일 팩터 동향

- ▶ 최근 1개월, 유럽은 EPS 변화율 스타일 팩터가 가장 좋은 수익률 기록(+1.5%), 규모(-2.9%) 스타일은 부진
- ▶ 중동 휴전에 따른 안도 랠리 과정에서 반도체 주 중심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로 3월 중에 강했던 방어 섹터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

유럽, 최근 1년 스타일 팩터 롱/숏 누적 성과



유럽, 최근 1개월 스타일 팩터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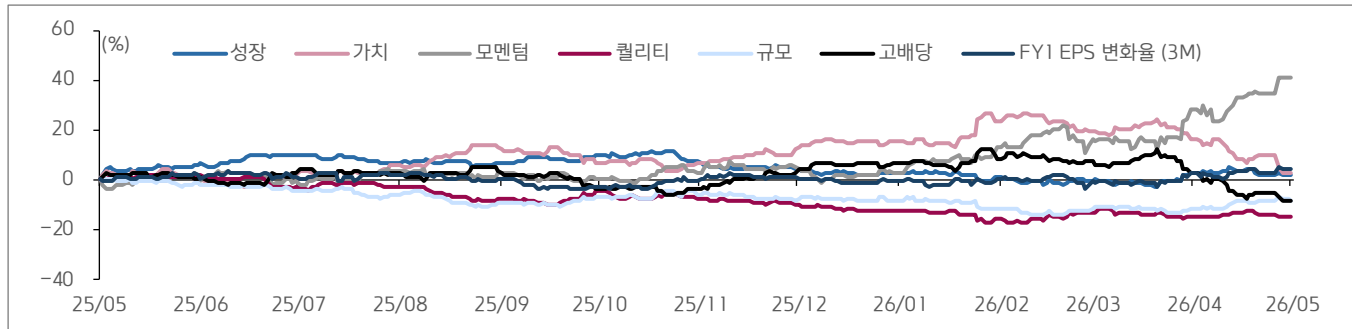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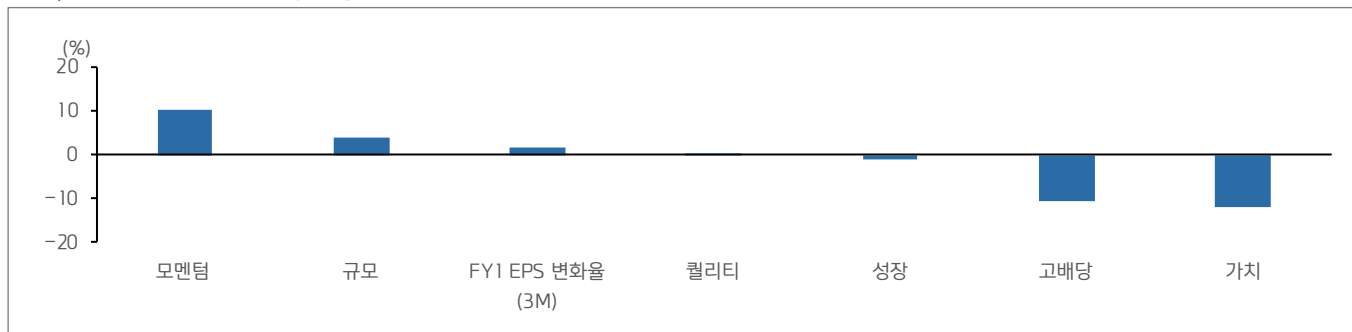
(스타일) 일본 주요 스타일 팩터 동향

- ▶ 최근 1개월, 일본은 모멘텀(+10.5%) 스타일 강세, 가치(-11.7%) 및 고배당(-10.6%) 스타일은 약세
- ▶ 미국-이란 휴전 이후 나스닥의 신고가 경신과 기술주 랠리에 힘입어 4월 말 닛케이 225 지수가 역사상 처음으로 60,000선 돌파. 상승 탄력성이 강한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전형적인 모멘텀 장세 연출

일본, 최근 1년 스타일 팩터 롱/숏 누적 성과



일본, 최근 1개월 스타일 팩터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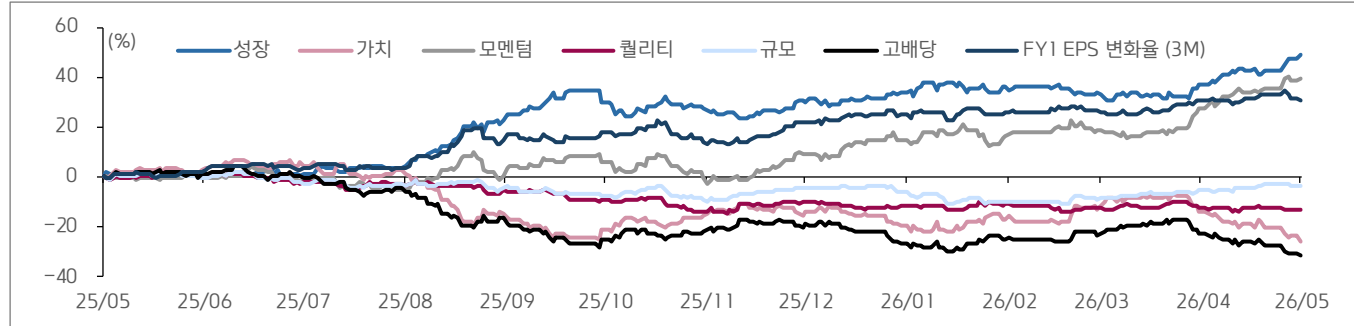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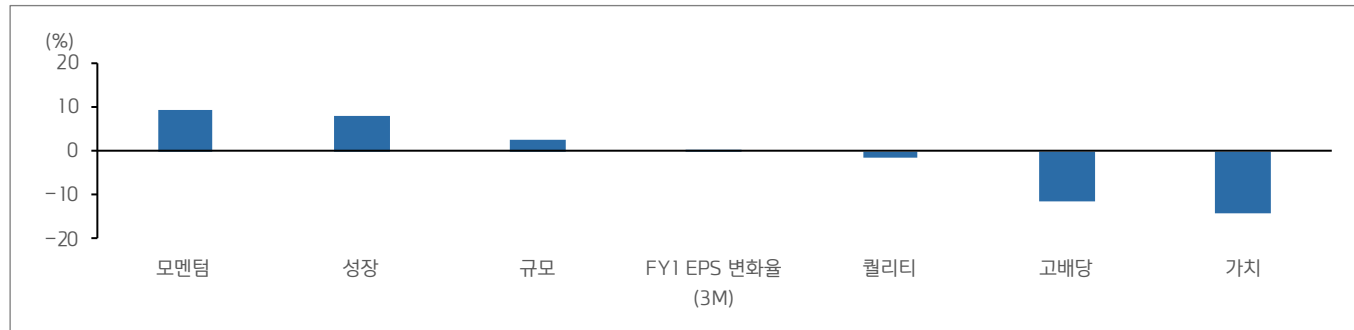
(스타일) 중국 주요 스타일 팩터 동향

- ▶ 최근 1개월, 중국은 모멘텀(+9.6%)과 성장(+8.3%) 스타일이 강세를 기록. 반대로 가치(-14.2%)와 고배당(-11.6%)은 약세 흐름.
- ▶ 중국 정부의 질적 성장 강조와 함께 기술주 중심의 성장 팩터가 강세. 경기 부양책이 점진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며 그간 낙폭이 컸던 성장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 및 숏커버링이 유입

중국, 최근 1년 스타일 팩터 롱/숏 누적 성과



중국, 최근 1개월 스타일 팩터 성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